

정 상 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단순화된 사물의 다의적 시각표현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화 학과

정 유 선

# 단순화된 사물의 다의적 시각표현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정 상 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 년 5 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 학과

정 유 선

# 인 준 서

정유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순화된 사물을 통해 보는 이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물에 대한 기억과 제작과정 그리고 표현방법에 대해 논한 것이다.

본인은 우리의 주변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사물들을 새롭게 재인식 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하였다.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여기거나, 특별히 여기지 않은 사물, 혹은 경험이 주관적인 감정 세계의 한 부분으로 표출되어 그것이 화면에서 미적인 대상으로 재조명되고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며 본인과 일상 사물과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인이 만들어낸 'BODYSHAPE'란 단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였고, 이 단어는 본인이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내용을 함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단순화된 사물의 형태를 통해 보여지는 다의적 시각에 대한 해석과 표현된 사물을 통한 지각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본인이 표현한 작품들의 재료의 특성에 따른 표현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재료를 이용한 사물의 표현, 흑연의 물질성을 통해 표현되는 작품 그리고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감정이 이입된 점선을 이용한 드로잉을 통해 작품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본인은 콜라그래피, 드로잉과 스텐실, 디지털 프린트로 구분하여 작품을 분석, 설명하여 작품을 통해 본인이 의도하고자 한 일상사물의 다의적 시각 표현에 대해 서술하였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양한 사물을 접하고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떼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물들

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사물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은 나름대로의 경험과 사건을 기억하고 추억한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고 추억하게 하는 것들 (사람이든, 사물이든)은 본인의 의식 속에 저마다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어떤 사물을 접했을 때 그 사물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 찍은 사진 속에 보여지는 사물을 보고 그 사물로 인해 연상되는 기억들을 내 속에 어떤 흔적(관념, 의미)을 표출해 내고자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조금씩 다른 시점에서 사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란 점을 제시하였으며, 정답 아닌 정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강박 관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한 사람의 눈에 직접 비쳐진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동일하게 비치지는 않는 이러한 사물의 .BODYSHAPE을 단순화 시키고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또 다른 사물을 제시하였으며 재료의 물질성을 통해 표현되어진 작품을 조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 론 .....	1
II. 본 론 .....	3
1. 사물의 BODYSHAPE .....	3
1) BODYSHAPE의 의미 .....	3
2) 단순화된 사물의 형태와 다의적 시각 .....	4
3) 사물을 통한 지각 현상 .....	6
2.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표현방법 .....	7
1) 일상 재료를 이용한 사물의 표현 .....	8
2) 흑연의 물질성을 이용한 표현 .....	9
3) 점선을 이용한 드로잉 .....	10
3. 작품 분석 .....	12
1) 콜라그래프(Collagraph) .....	13
2) 드로잉(Drawing)과 스텐실(Stencil) .....	23
3) 디지털 프린트(Digital Print) .....	29
III. 결 론 .....	30

## 참고 도판

## 참고 문헌

## ABSTRACT

## 작품 목차

[작품 1]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14
[작품 2]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14
[작품 3]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16
[작품 4]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16
[작품 5]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18
[작품 6]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18
[작품 7]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18
[작품 8]	BODYSHAPE, 50X50X10cm(4panel ,each), 2002	21
[작품 9]	BODYSHAPE, 90X90X6cm, Stencil, 2003	24
[작품 10,11]	BODYSHAPE, 100X70cm, Drawing, 2003	26
[작품 12]	BODYSHAPE, 162X130cm, Digital Print+Photo, 2004	28
[작품 13]	BODYSHAPE, 162X130cm, Digital Print+Photo, 2004	28

## 도판 목차

(도판1) 클래스 올덴버그 <빨래 집게>, 강철, 1976, 미국필라델피아

(도판2) 폴 스트랜드<Chair Abstract, Twin Lakes, Connecticut>, Photo, 1916

(도판3) 폴 아우터브리지<Marmon Crankshaft>, Photo, 1923

(도판4) 에드워드 웨스턴<Shell>, Photo, 1927

(도판5) 에드워드 웨스턴<Nude>, Photo 1934

(도판6) 에드워드 웨스턴<피망>, Photo, 1930

(도판7) 조지아 오키프<Black Iris III>, Photo, 1926

(도판8) 알베르트 령어 파츠슈<Sempervivum Percaneum>,Photo, 1922

# I. 서론

본인의 작품에 보여지는 사물들은 본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물들 중에서 작품에 등장하는 것은 주변에서 늘 보아오던 것들 즉, 본인이 항상 사용하는 물건들,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 도구들, 기억과 연관된 애착이 깊은 것들이다.

이렇듯 지극히 일상적인 사물들은 본인이 성장해 오면서나 그 이후의 본인 생활 주변에 늘 같이 해 오던 것으로서 일상의 단순한 실용적 물건이라는 의미를 떠나 본인에게는 특별한 애착을 지니며 애뜻함이 깃들여 있는 익숙하고 친근한 것이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작업에 소재로 쓰이게 되었다. 본인은 기억과 경험들이 현재, 과거에 존재해 왔던 사물과 만났을 때의 느낌을 조형화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경험이나 기억의 한 조각이 어떤 사물을 접하게 되었을 때 함축적인 이미지를 암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작품의 주제가 다양한 경험과 주변 상황들을 겪으면서 접하는 다양한 사물들을 개인적인 시각으로 전개하고 있다. 작품의 의미는 보는 사람에게 맡겨진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물을 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답을 얻어내고자 함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제시하고자 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을 밝히고 싶다. 이것이 무엇일까?가 아닌 ‘이것은 무엇인 것 같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순수하게 개인적인 경험속에서 새로운 사물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일한 대상도 보는 시점을 조금만 바꿔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본론에서는 우선 BODYSHAPE의 단어적 의미와 단순화된 사물의 외형을 통해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본인이 작업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사용한 재료의 특성과 작품과의 관계에 대해 에드워드 웨스턴, 조지아 오키프와 같은 사진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하여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 3항에서는 본인이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작품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설명하였으며 이는 작품 사진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유년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작품들과 본인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물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물건들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창작 동기와 표현양식 등을 분석하고 반성해 봄으로서 본인이 표현하고자하는 관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확장된 방향으로 본인의 창작의욕을 나타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사물의 BODYSHAPE

#### 1) BODYSHAPE의 의미

BODY - 몸, 신체, 육체

(사물의)주요부 (차, 배, 비행기의)본체, 동체, 보디

떼, 무리, 다수

(작품, 음식등의) 실질, 알맹이

SHAPE - 모양, 꼴, 형태, 형상, 외형

구체화된 형상, 뚜렷한 모양

형, 상태

BODYSHAPE이란 단어는 사전에는 없는 만들어 낸 단어이다.

‘BODY’+‘SHAPE’란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BODYSHAPE’이란 말을 들었을 때 기존에 있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은 아마도 ‘BODY’란 단어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물의 ‘BODY’가 아닌 사람의 ‘BODY’를 쉽게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들에 당연히 반응하면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좁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러한 이름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본인의 작업의 제목이 된 것이다. 최근에는 본인뿐 아니라 ‘이미지 스케이프(Image Scape)’, ‘바디 스케이프(Body Scape)’등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신조어들이 생기고 있기도 하다. 본인 또한 작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BODYSHAPE’란 단어를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물건, 사물들을 접하고 있다.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으로 아니면 자신에게는 값어치 없는 물건으로 지각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른 생각과 기억, 경험 때문일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사물의 외형을 보고 각자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의 내면이나 성격보다는 일단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말이다.

다시 말해 이런 시각적인 것에서 받은 감각이 시간이 지나도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물들의 형상만을 단순화시키고 확대해서 표현하였을 때 외형이 단순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그 물체의 모양에만 더 집중 될 것이며 사람들은 단순화된 이미지를 보고 이것이 무엇 일까하고 고민하게 될 것이고 각자의 기억의 영향을 받아 다른 이미지를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클래스 올덴버그(도판1)와 에드워드 에스턴의 작품(도판5,6,7)에서도 엿 볼 수 있다.

## 2) 단순화된 사물들의 형태와 다의적 시각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 독립적으로 인식된 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이고 특수한 감각작용을 통해 어떤 형태의 이미지를 보고 다양한 추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습득한 시각적 지식이 시야에 어떤 물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다. 이러한 시각적 지식과 경험으

로 인해 보는 이마다 다의적 시각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개인들의 다양한 경험, 생각, 시간들이 축적되어 만들어 낸 새로운 사물인 것이다.

예를 들자면 1)에드워드 웨스턴의 사진 작품 <Shell>(도판10)은 동물이나 식물을 소재로 한 웨스턴의 근접 사진들은 대상들을 현실적인 문맥에서 떼어놓아 형태와 문양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에드워드 웨스턴의 작품 <누드>(도판6) 와 <조개>(도판7)의 작품을 비교해 볼 때 본인이 작품에서 의도하고자 한 다양한 상상력을 암시 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형태와 문양으로 제시하고 있는 웨스턴의 작품과 2)조지아 오키프(도판12)가 그린 꽃 그림들과 닮은 데가 있다.

에드워드 웨스턴은 " 훌륭한 구도란 사물을 가장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그것은 모든 창조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받아 배울 수가 없다. 다만 그 사람의 내적 성장에 의해 깨달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으며 그의 사진 작품처럼 본인의 작업 역시 조형적인 원리의 지적인 부분에 서정적인 감정이입을 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 에드워드 웨스턴(Edward Weston, 1886 -1958)

: 1886년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뉴잉글랜드의 목사나 교수, 의사 등을 배출한 집안이었다. 그가 사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1902년, 열여섯살 때 아버지가 코닥회사의 복스 카메라를 사준 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1910년대부터 50년대까지 활약한 사진가이다. 그의 전성기는 20년대부터 40년대까지이며, 사람들은 그를 '사진의 거장' 이라고 일컫는다. 1920년대 여러 주요 사진가들 중 한 사람으로 자연 대상뿐 아니라 산업적인 대상들을 고의로 설명적인 체제를 일체 제거 한 채로 찍은 사진들을 남겼다.

2) 조지아 오키프(O'Keeffe, Georgia , 1887.11.15~1986.3.6) : 미국의 여류화가이며, 위스콘신 주 선프레리 근처 농장에서 태어나 1904년 시카고 미술학교, 1907년 뉴욕 아트 스투던츠 리그에서 공부했으며 상업미술 활동을 했다. 작품의 주제는 주로 두개골, 짐승의 뼈, 꽃, 식물의 기관, 조개껍데기, 산 등의 자연을 확대시킨 것이다. 오키프는 서유럽계의 모더니즘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추상환상주의의 이미지를 개발하여 20세기 미국 미술계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 대표작으로 《검은 붓꽃 Black Iris》(1926), 《암소의 두개골, 적, 백, 청 Cow's Skull, Red, White and Blue》(1931) 등이 있다. 자서전 《조지아 오키프 Georgia O'Keeffe》가 1976년 발간되었다.

### 3) 사물을 통한 기억의 지각 현상

개개인이 모두 같은 정도의 상상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이는 모두가 똑같이 뛰어난 기억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이나 같다.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오감으로 느낀 사물에 대해 어떠한 충격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날 그런 비슷한 환경이나 사물을 접했을 때 희미한 기억을 문득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마치 ‘데자뷰’현상처럼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의 뉘앙스나 외모, 몸짓 따위에 민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덜 그렇다. 우리는 가장 넓은 의미의 인간 경험 -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정서적, 정신적 경험- 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지각하는 형이란 관찰하는 순간 눈에 와서 닿는 자극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 아른하임(Rudolf Arnheim,1904~, 독일)의 말처럼 인간이 어떤 새로운 것을 지각 할 때는 일상적 체험 내에서 경험을 통해 얻어졌던 이미지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 이미지들은 영상으로 남게 되며 이것은 기억되는 경험적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시키고자 하는 특성을 갖는다.

감각작용(Sensation) 또한 한 사람, 한사람에게 개인적인 것이므로 다양한 형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에드워드 웨스틴의 작품 <피망>(도판11)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웨스틴은 피망을 보고 남자의 근육을 연상케 하기도 하며 피망의 형태와 질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이미지로 보여지기도 하는 이미지의 이원성을 뚜렷이 보이는 3) ‘아퀴벌런트(equivalent)’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4)클래드 올덴버그의 작품(도판1,2,3)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의 작

---

3) 아퀴벌런트(equivalent) :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 Stieglitz)가 지은 용어로 ‘등가치, 등가물, 또는 동등한’등의 뜻으로 번역된다

- 이광미, 「시각 예술의 이해」, 지구 문화사, 2003 p.192, 4

4) 올덴버그는 진기하고도 심각한 경향의 추상표현주의를 겪은 후 미술을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릴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는 “나는 일상의 잡동사니와 혼동되면서도 여

품은 일상적인 사물이 거대해지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사물의 특성과는 달리 여러 가지의 시점으로 보여 질 수 있게 표현되었다. 본인의 작품 중 <BODYSHAPE> (작품9)에서 볼 수 있듯이 쇼핑백의 한 부분을 확대하여 표현한 결과,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낸 점에서 올덴버그의 작품과도 비교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경험, 생각, 시점에서 사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물이라도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관심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으로부터 얻는 상상적 경험이 예술가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예술가가 위대한 예술가인 것에 비례하여 우리는 우리가 그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포착했을 뿐이라는 것을 상당히 잘 확신할 수 있다.<sup>5)</sup>”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거나 쓴 것을 읽은 어떤 경우에도 사정은 똑같다. 그리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이해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 2. 재료의 특성을 살린 표현 방법

본인의 작품에서 전개되는 이미지는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형태

---

전히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미술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5) 콜링우드(Robin G. Collingwood) : 콜링우드(1889~1943)는 역사가이며, 철학자로서 옥스퍼드대학의 웨인플레트 형이상학 교수(Waynflete Professor of Mera-physical Philosophy)를 역임했다. 당대의 가장 박학한 인물의 하나였던 그는 관시과 지식의 폭이나 독창적인 사고에 있어서 가히 놀랄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비코(Vico)를 찬양했으며 크로체(Croce)와 더불어 관념주의 예술론을 대표한다. - R.G. 콜링우드, 「상상과 표현」, 고려원, 1978, p.364, 9

를 단순화 시켜 표현하는데서 시작하였으며 표현해 내고자 있는 사물들은 구체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암시적으로 나타내었다.

단순히 하나의 덩어리, 간단한 선으로만 이미지를 표현하여 물체의 형태를 부각, 집중시켰으며 본인의 표현적 기법에서는 기존의 전통판화에서 살짝 벗어난 콜라그래피(collagraph)와 스텐실(stencil)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사물의 단순화와 간결성을 나타내기에는 기존의 전통 판화보다는 방법과 절차 역시 단순하고 간결한 콜라그래피와 스텐실이라는 표현 기법이 작품의 성향에 맞다고 생각하였으며 하나의 이미지를 보고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표현기법 역시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적합하기에 사용하였다.

### 1) 일상재료를 이용한 사물의 표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도구, 물건들을 이용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용하는 사물들의 종류에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본인 역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다양한 종류의 사물을 접하고 있으며 특히 미술재료나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본인의 주변 사물을 이용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본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물은 대부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물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쓰고 그릴 때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연필, 펜, 붓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사회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등의 형태만을 단순화시켜 표현하였다.

또한 주변에서 쉽게 사용하고 접할 수 있는 테이프와 시트지등을 이용해 사물이 또 다른 사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재미있는 표현 방법으로 꼴

라그래피를 통해 이미지를 오리고 자르면서 나타내는 선의 감정은 본인이 지니고 있는 기억과 경험을 순간 순간을 작품으로 나타내었다. 같은 종류의 시트지라도 가지고 있는 성분의 차이로 다양한 톤을 표현 할 수 있으며 종이테이프나 박스테이프 등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표현의 다양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설명할 BODYSHAPE 작품에서 주변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된 여러 작품을 살펴 볼 것이다.

이것은 언뜻보면 동판의 예칭 같기도 하고, 그린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기도 할 것이다.

## 2) 흑연의 물질성을 이용한 표현 방법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연필과 같은 물건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그런 태도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연필은 너무 흔하고, 값싸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만큼이나 익숙하기 때문이다.<sup>6)</sup>

본인이 ‘7)흑연(연필)’ 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언가를 기록하고 표현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재료이며 우리가 가장 오래동안, 가장 많이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하게 될 재료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8)앤드류 와이어스 Andrew Wyeth는 자신의 연필을 펜싱 선수의 연습용 칼인 ‘플러레’ 라고 불렀으며 툴루즈 로트렉 Toulouse Lautrec은 스스로를 일컬어 ‘나는 연필이다’ 라고 하였을 정도로 본인 뿐만 아니라 이들도 연필이라는 소재에 대해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흑연을 계속 반복해서 문질러 표현할수록 우리는 이것이 ‘흑연’ 이라는 물성(질) 대신에 다른 물성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흑연일수

6) 헨리 페트로스키 「연필」 지호, 1997 p.21

7) 흑연 : 흑연이란 불리기 전에는 ‘검은 코코스 black-cowke’, ‘키쉬 kish’, 검은 크레용 crayon noir’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 헨리 페트로스키 「연필」. 지호, 1997

8) 헨리 페트로스키 「연필」. 지호, 1997 p.22

도 흑연이 아닌 다른 재료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는 재료이다. 본인이 흑연이라는 재료를 문질러 표현할 수록 흑연이 금속성의 질감처럼 표현된 작품을 [작품10,11]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흑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물성이 반복적으로 문질러져 다른 물성처럼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한 재료에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의 작업에서 의도하고자 한 이미지의 내용과 재료적 표현에서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되어 흑연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색상의 선택에 있어서도 본인이 무채색인 white와 black을 사용한 이유는 가장 단순하게 보이지만 가장 많은 색을 내포하고 있는 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든 색이 합쳐져 만들어진 색이 ‘검정’이라 불리는 색이며 이는 본인이 의도하고자하는 작품 표현에 있어 적합한 색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본인의 [작품10,11]에서 볼 수 있는 색은 ‘검정아닌 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흑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검정에 가까운 색상이다.

흑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검정색상을 통해 우리는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으며 재료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다. [작품10,11]에서는 흑연이라는 성분으로 된 재료를 사용하여 형태를 그리고 그 안을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 3) 점선을 이용한 드로잉

개인적으로 드로잉을 좋아하는 본인은 항상 작은 드로잉 북에 사물들의 형태를 담아두고 그것들을 작품화하곤 한다. 이러한 본인의 특성은 스케치에서 뿐만 아니라 판화로 찍어진 작품 안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본인의 대부분의 작품을 살펴보면 판화로서의 찍어진 부분이 아닌 손으로 직접 그려진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본인이 작품을 완성하는 단계로 찍어져 나온 이미지의 한 부분에 점선으로서 마무리 작업으로 표현한 선들이다.

이는 직선이 아닌 점선을 사용함으로써 무언가에 대한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한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 나아가듯이 점선을 하나 하나 그려나가면서 이미지의 표현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물의 형태를 그린 뒤 그 사물에 대해 개인적으로 좀 더 특별히 다가오는 부분에 점선을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선들은 본인의 모든 작품에서 볼 수 있다.

### 3. 작품 분석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가 가졌던 경험을 그림에 ‘기록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sup>9)</sup> 이 물음을 갖고 우리는 청중이라는 주제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감상자들은 그러한 기록을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그림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또는 나중에 화가 자신에 의해 보여질 때 그 사람 안에 감각 정서적인 또는 심리적인 경험을 산출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 감상자의 의식 활동에 의해 인상으로부터 관념으로 상향될 때 화가의 그것과 동일한 완전한 상상적 경험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설명하게 될 작품은 본인의 사물에 대한 기억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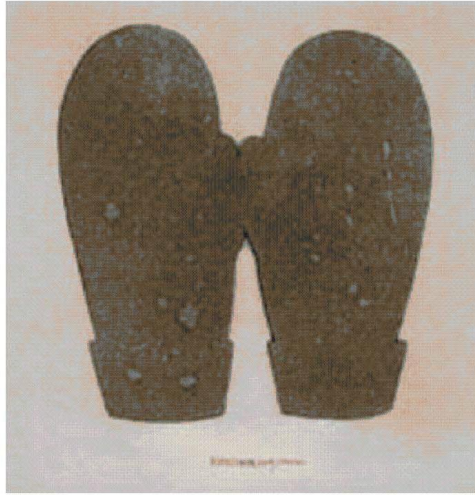
앞으로 설명할 본인의 작업은 작품의 표현기법의 종류인 <콜라그래피>, <드로잉과 스텐실>, <디지털 판화> 이렇게 3분류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

9) R.G. 콜링우드, 「상상과 표현」. 고려원, 1978, p.362(4. 이해자로서의 청중)

### <콜라그래피>

콜라주는 풀로 붙인다는 뜻으로 1912~13년경 브라크와 피카소 등의 입체파들이 유화의 한 부분에 신문지나 벽지·악보 등 인쇄물을 풀로 붙였는데 이것을 ‘파피에 콜레’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 수법은 화면의 구도·채색효과·구체감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다다이즘시대에는 파피에 콜레를 확대하여 실밥·머리칼·깡통 등 캔버스와는 전혀 이질적인 재료나 잡지의 삽화·기사를 오려붙여 보는 사람에게 이미지의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부조리와 냉소적인 충동을 겨냥하였다. 여기서 사회풍자적 포토 몽타주가 생겨난 것이다. M.에른스트의 작품도 여기에 속한다. 1950년대 초 로렌스 앨러웨이에 의해 명명된 팝 아트도 역시 테크놀러지라든가 매스 미디어에 의해 대중의 시각 안에 있는 조형적 요소를 몽타지해서 작품에 포함시켰으며 R.라우션버그의 작품도 원천은 콜라주기법에 의한 것이다. 사실 콜라그래피는 콜라주에서 파생된 단어이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사용하는 테이프나 시트지 등을 오려서 이미지를 만들어 찍어 작품을 표현하였다.



<작품 1>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작품 2>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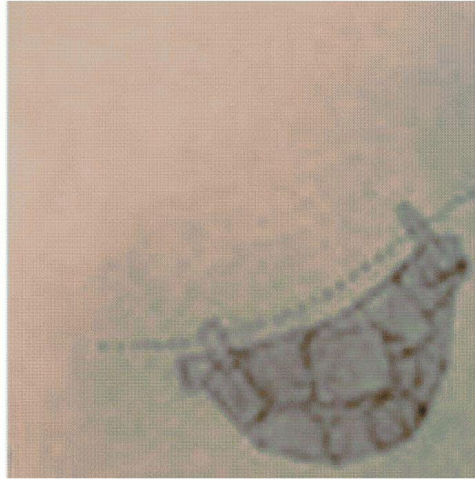
**[작품 1]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하얀 색 앙고라 병어리 장갑 ‘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에게 선물로 받은 이 장갑을 대학생때까지 사용한 기억이 있다. 10년이라는 세월동안 나와 함께 겨울을 보낸 사물의 Shap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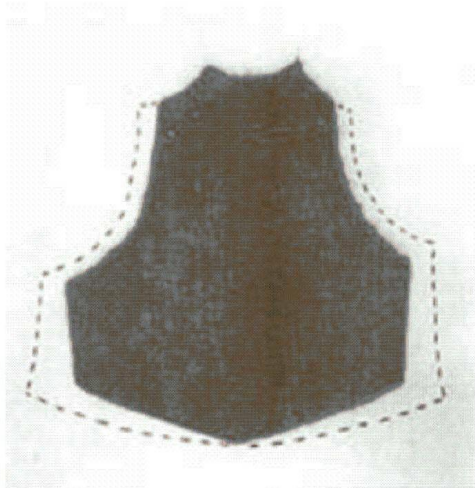
손가락이 다 보이는 장갑보다는 장갑속에서 꼼지락 거리며 알수 없는 무언가를 표현해 내려고 애쓰던 어린 소녀의 하얀 병어리 장갑에 대한 추억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은 너무 작아져서 사용 할 수 없는 장갑의 형태를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트지 위에 엠보싱과 스크래치등의 흠집 효과를 내어 나타낸 작품이다. 오랜 시간의 흔적을 나타내고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작품 2]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이 작품의 이미지 역시 보는 사람마다 다른 사물을 상상하겠지만 작가 본인은 아날로그 시대에 가지고 놀던 스프링 장난감을 표현한 것이다. 손을 위, 아래로 움직일때마다 변화는 스프링의 모양을 상상하며 유년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표현한 작품이다. 동네에 있던 작고 허름한 문방구 앞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던 그 시간들과 장소를 모두 떠올릴 수 있는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라인테이프, 종이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등 여러종류의 테이프중에서 라인 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스프링 장난감의 이미지를 만들고 잉킹을 한 후 찍어낸 것인데 이 작품은 한번에 두 점을 찍어 표현한 작품이다. 처음 찍어 종이에 묻어나온 잉크의 양으로 표현된 작품과 그 나머지 잉크만을 사용해 찍어낸 작품, 이렇게 두 점이 이 한 작품이다. 물론 다른 모든 작품 역시 한번에 두점의 작품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미지의 성향에 따라 몇 작품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찍어낸 작품 위에는 본인 고유의 점선 드로잉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작품 3>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작품 4>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작품 3]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자아이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장난감이 아마도 인형, 그 중에서도 금발 머리를 하고 파란 눈을 가진 마루 인형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그 마루 인형을 가지게 되기 전까지는 ‘종이 인형’이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종이로 된 예쁜 옷과 장신구로 치장을 해주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다. 어린 시절 마루 인형 대신에 여자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던 놀이 중 하나가 종이인형놀이였을 것이다. 작가도 어린 시절 종이 인형 놀이를 한 기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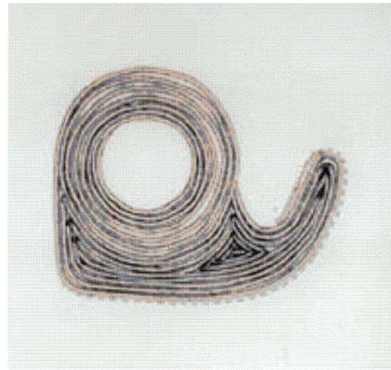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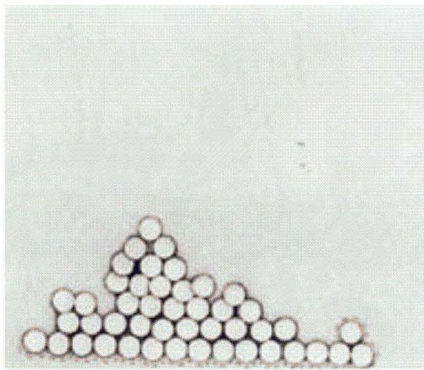
이 작품은 3M테이프의 투명한 테이프와 불투명한 테이프를 혼합하여 겹쳐 붙여가며 짝어낸 작품이다. 각 테이프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성질을 이용하여 한번에 두 가지 색상을 표현해 낸 작품이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며 종이 인형의 속옷을 이미지와 한 작품이다. 짝어낸 작품 위에 마찬가지로 연필을 이용하여 드로잉을 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작품 4]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이 작품 역시 어릴 적 입었던 한복의 조끼를 형상화 한 것으로 넓은 종이 테이프를 오려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위에 잉킹을 한 후 짝어내고 목탄으로 드로잉 하였다.



[작품 5]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작품 6>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작품 7>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작품 5]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첼커덕 ‘하는 소리,’ 딸깍 ‘하고 무언가를 여는 소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나가고 들어오거나 무언가를 시작하고 끝낼 때 사용하는 사물인 자물쇠와 열쇠이다. 자물쇠보다는 열쇠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자물쇠가 없다면 열쇠도 필요없는 것이다. 이렇게 들은 떼어 놓고 생각 할 수 없는 짝궁이다. 본인에게는 문을 열고 잠그는 역할의 사물보다는 무언가를 시작하고 끝낼 때 사용하는 사물이라는 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년 동안 대학원 조교로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종류의 열쇠는 내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했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마무리로서의 역할까지 하였다.

이런 내용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지만 이 작품을 통해 다양한 표현방법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 자물쇠 형태의 작품은 황토로 이미지를 만들어 굳인 후 그 위에 잉킹을 하고 찍어낸 작품으로 황토의 거친 성질을 이용하여 좀더 강한 색감을 표현 할 수 있었으며 다른 하나의 작품은 열쇠 형태를 만들어 판 위에 붙인 후 그 위에 시트지를 이용하여 엠보싱 효과를 나타냈었다. 그리고 찍혀진 작품위에 니들로 흠집을 내어 점선을 표현하였고 그 주변 외곽은 연필을 이용하여 드로잉 하였다.

**[작품 6]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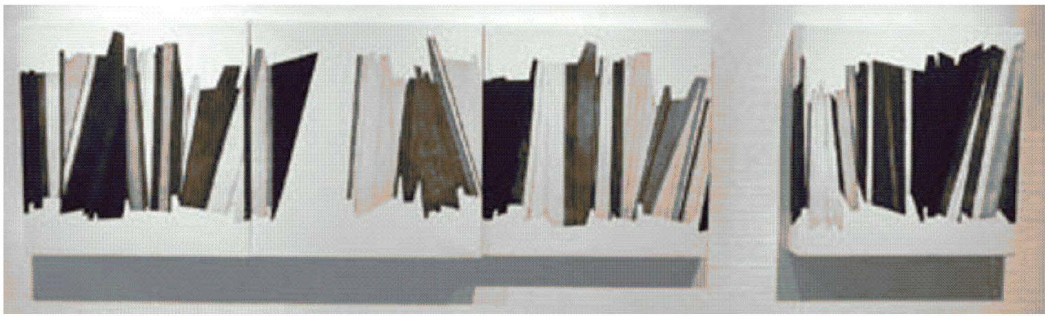
미술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필기도구를 표현한 작품으로 이것은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연필, 색연필등의 미술 도구를 쌓아 놓은 것의 측면을 표현한 작품으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동그란 스티커를 이용하여 나타내었으며 스티커의 매끈한 표면으로 인해 그 부분을 제외한 테두리에만 잉크가 묻어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밑부분에 드로잉을 하여 마치 움직이는 듯한 느낌으로 드로잉을 하였다.

**[작품 7] BODYSHAPE, 15X15cm, Collagraph, 2003**

현대 문명의 이기 중 하나로 종이를 붙이거나 찢어진 것을 붙일 때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테이프의 형태를 가느다란 띠 테이프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만들어 찍어낸 작품이다.

테이프에 감겨져 있는 형태를 생각하여 형태를 만들때에도 끊기지 않게 연결하여 작품을 나타내었으며 이 작품도 한번에 두 점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형태는 놓는 방향에 따라 또 다른 이미지를 상상 할 수 있으며 이 작품 역시 점선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본인의 제목인 BODYSHAPE과 싸인을 작품의 한 부분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8> BODYSHAPE, 50X50X10cm(4panel, each), 2002

[작품 8] BODYSHAPE, 50X50X10cm(4panel,each), Collagraph,  
2002

이 작품은 Collagraph기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트지, 테이프, 황토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질감과 색감등으로 책꽂이에 진열되어 있는 책들의 형태를 나타낸 작품이다.

화면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표현한 이유는 자칫 획일화되어 보이는 이미지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재미를 주기 위해서이다.

책들이 이리저리 꽂여 있는 모습을 보고 표현한 작품이며, 정면에서 보이는 책이 꽂여진 모습이 아니라 꽂여져 있는 책의 윗 부분을 표현 한 작품이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작품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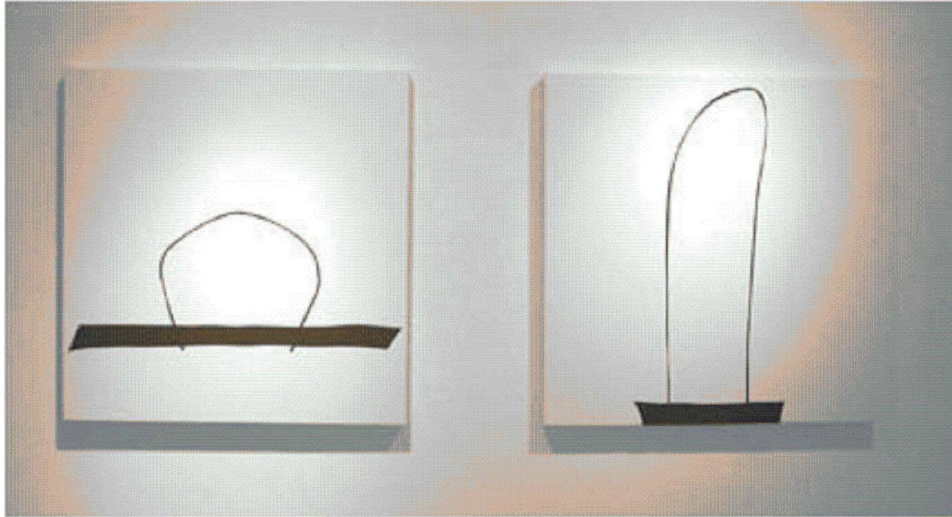
## <드로잉과 스텐실>

지금부터 설명할 작품들은 연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나타낸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위에서 설명한 작품들과는 달리 채워나가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본인이 그런 어떤 사물의 형태의 외곽을 나타낸 후 그 안을 끊임없이 문질러 채워서 표현한 작품들이다. 흑연을 사용해 채워나가는 형식은 같지만 그려진 흑연, 드로잉과 매꿔진 흑연, 스텐실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흑연으로 계속 문질러 표현한 이 작품들은 연필이라는 소재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재료의 재질을 다시 한번 의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작가의 일상 소재를 가지고 단순화하여 표현한 의도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이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안료를 이용해 기존의 평평한 스텐실이 아닌 두께감을 주어 표현한 스텐실로 입체감을 주어 조형적인 면을 부각시켜 표현하였다. 단순한 형태 때문에 자칫하면 너무 지루해 보일 수 있게 때문에 흑연이 가지고 있는 물성과 다양한 안료로 만든 재료를 사용해 두께감을 주어 표현하였다.

기존의 흑연이라는 재료에서 다른 면을 찾아볼 수 있듯이 작가가 표현한 사물에서 다른 면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의미와 일치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다.



<작품 9> BODYSHAPE, 90X90X6cm, Stencil, 2003

**[작품 9] BODYSHAPE, 90X90X6cm, Stencil, 2003**

이 두 작품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사용하고 있는 쇼핑백의 일부를 가져와 표현 한 작품이다. 작가는 쇼핑백의 손잡이 부분만을 확대시켜 Stencil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작가는 감상자가 쇼핑백이라는 정답(?)을 생각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앞에서도 작가의 의도를 서술했듯이 사물의 일부분을 보고도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작품이다. 올덴버그의 작품 (도판1,2)에서도 이렇게 사물을 거대화 시켜 표현하여 사물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였다.

이 작품은 두께 6cm판넬 위에 캔버스를 씌우고 여러번 밀칠을 하였으며 완전한 하얀색이 아닌 마치 판화지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미색을 칠하였으며 표면위에 여러 가지 안료를 섞어 만든 재료를 이용해 사물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Stencil기법을 사용하여 이미지에 두께감을 주어 표현하였으며 두께감으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는 너무 단순하고 지루해 질 수 있는 면을 고려하여 나타낸 작품이다.



<작품 10> BODYSHAPE, 100X70cm, Drawing, 2003



<작품 11> BODYSHAPE, 100X70cm, Drawing, 2003

[작품 10,11] BODYSHAPE,100X70cm, Drawing, 2003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물건이 한 두 개씩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물을 가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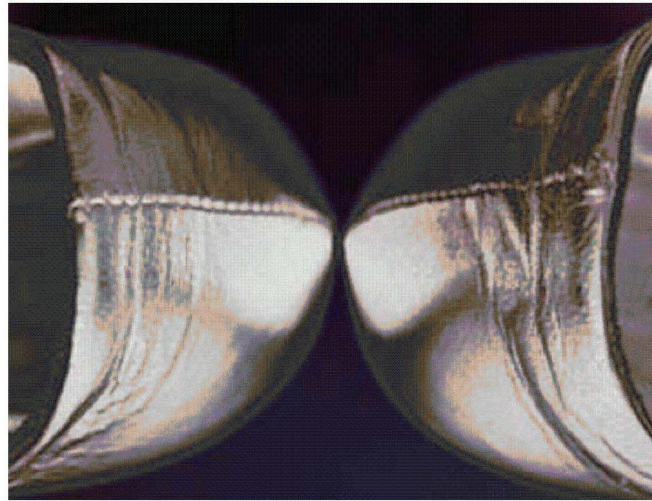
본인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물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억이 있다. 가방과 신발을 좋아하는 본인은 이 두 작품을 확대하여 형태를 그린 후 흑연을 이용하여 작품을 완성시켰다.

작품의 형태를 흑연으로 문질러 채워나가는 행위가 마치 그 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본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위에서 설명한 작품들과는 달리 사물의 형태를 좀 더 시각적으로 구체화 시켜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이 앞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의 과정 단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12> BODYSHAPE, 162X130cm, Digital Print+Photo, 2004



<작품 13> BODYSHAPE, 162X130cm, Digital Print+Photo, 2004

## <디지털 프린트>

[작품12, 13] BODYSHAPE,162X130cm,Digital Print+Photo, 2004

이 두 작품은 본론에서 다루지 않은 작품들이다.

최근에 본인이 하고 있는 작업으로 앞에서 설명한 작품들을 통해 발전된 작품을 설명하고자 넣은 작품들이다.

이 두 작품의 공통된 소재는 ‘신발’이다.

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발의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을 하고 컴퓨터 작업을 한 뒤 캔버스 위에 프린트를 받은 것이다.

캔버스라는 소재를 사용해 마치 그린 것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으며 사물의 크기가 커짐으로서 우리는 또 다른 사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클래스 올덴버그가 사물을 거대화시켜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사물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다.

### Ⅲ. 결 론

작가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감정들의 표현은 작가의 의지의 결과이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사물을 다의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의 제목인 BODYSHAPE은 본인이 바라본 사물의 객관적 형태의 표현이며 작품은 하나의 주관적 관점을 통해 보여지는 대상물들의 결과이다.

일상적인 사물을 소재로 표현된 작품을 통하여 자신만이 겪어 온 경험이나 그 때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도록 본래 사물의 속성을 배제하고 조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꾀하였다.

본인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태에서 하나가 아닌 또 다른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조형적인 면을 부각시켰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아닌 것을 상상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였다. 사물만을 강조하기 위해 그 본래의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색상에서도 한정되어질 수 있는 유채색이 아닌 무채색으로 표현하여 새로운 사물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짧은 2년간의 대학원 생활을 통해 본인이 나타내고자하는 모든 의도나 표현적 방법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간은 본인에게 있어 무언가를 얻어내고 반성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원 졸업을 앞둔 본인의 작업의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며 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새로운 작업에 대한 여지를 보여주기 위해 작품 설명에 최근에 한 작품 두 점을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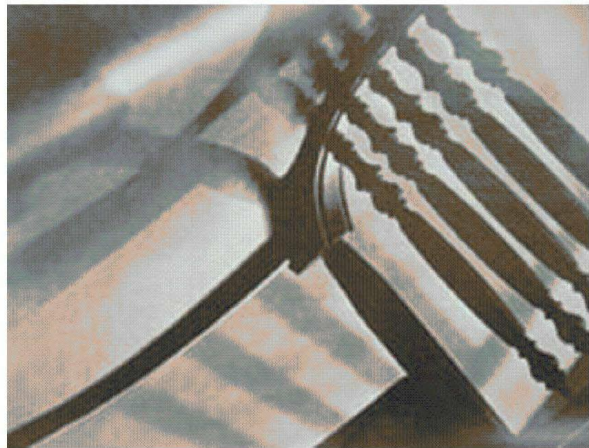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창작 동기와 표현양식 등을 분석해 봄으로써 모색된 가능성과 부족했던 점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하고자 하며

앞으로의 작업방향은 조형적인면에 많이 치중했던 점을 보완하여 사회적, 문화적인 다각화된 방향으로 작품의 표현 영역을 넓혀 본인의 창작의욕을 나타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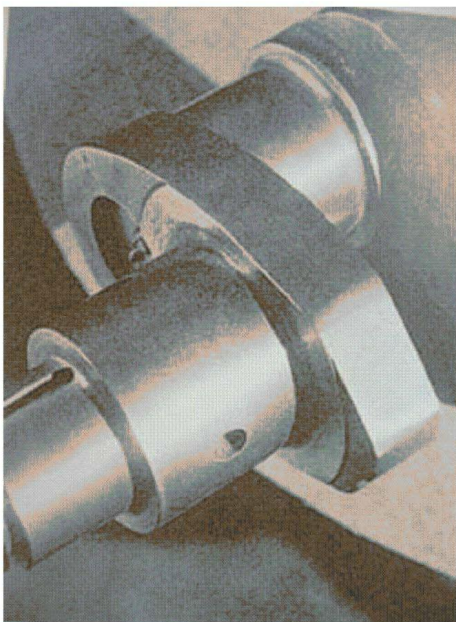
## 참고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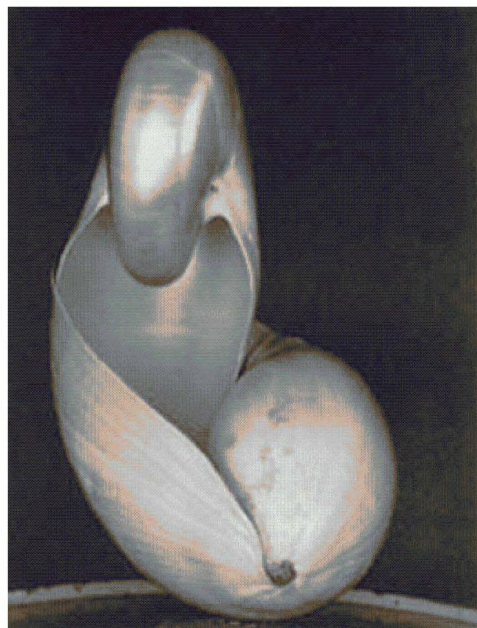
<도판1> 클래스 올덴버그 <빨래 집게>, 강철, 1976, 미국필라델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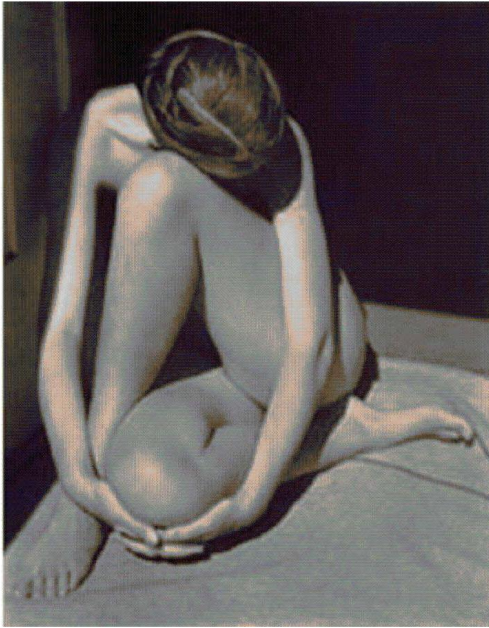
<도판2> 폴 스트랜드<Chair Abstract, Twin Lakes, Connecticut>, Photo, 1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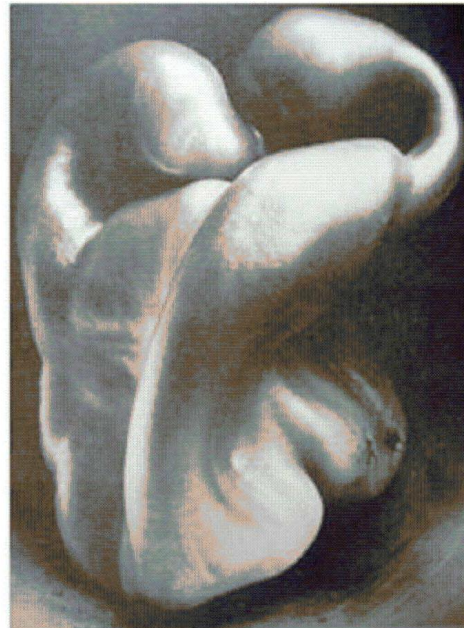
<도판3> 폴 아우터브리지 <Marmon Crankshaft>, Photo, 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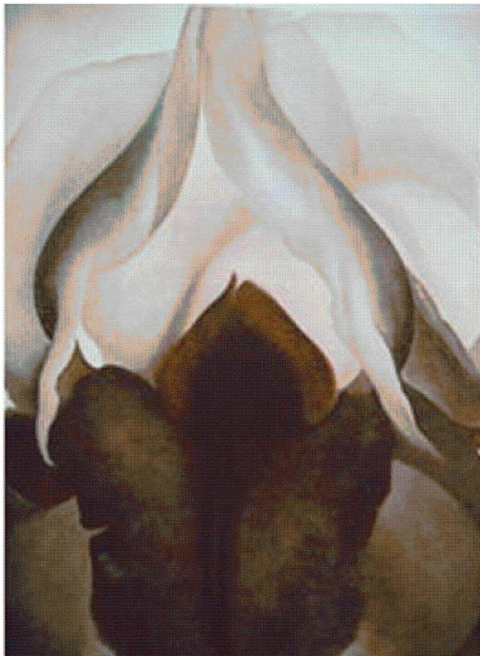
<도판4> 에드워드 웨스턴<Shell>, Photo, 1927



<도판5> 에드워드 웨스턴<Nude>, Photo 1934



<도판6> 에드워드 웨스턴<피망>, Photo, 1930



<도판7> 조지아 오키프 <Black Iris III>, Photo, 1926



<도판8> 알베르트 령어 파츠슈 <Sempervivum Percaneum>, Photo, 1922

## 참고 문헌

- 이광미(2003) 「시각 예술의 이해」 (서울=지구 문화사)
- Henry Petroski(1955). 「연필」. 홍성림역. (서울=지호)
- Gorden G(2000). 「예술 철학」. 이용대 역 (서울=이론과 실천)
- F.-W.폰 헤르만(1997) 「하이데거의 예술 철학」. 강태성역 (서울=문예출판사)
- R.G. Colling Wood(1980). 「상상과 표현」. 김혜련역 (서울=형설)
- Edward Rucy Smith(2002). 「20세기 시각예술」. 김금미역 (서울=예경)
- Judy Martin(2000) 「관화 기법」. 신지식;최기득역 (서울=예경)
- Rudolph Alunhaim(2004). 「시각적 사고」. 김정오역.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Russell, Bertrand Arthur William(1994). 「철학이란 무엇인가」. 권오서역 (서울=홍신문화사)
- 신경희, 기억에 의한 조형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정은아, 일상으로부터 일탈된 사물성 표현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ABSTRACT

## Variety Vision Expression of Simplified Objects

- Concentrating around My Work -

Jung Yoo Sun

Dep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a discussion on recollection, production process, and expression method used for new objects a person sees through simplified object pieces created by the writer from 2002 to 2003.

The purpose was to shed new light on ordinary objects that exist as accepted parts of our lives. Objects of personal value, objects not of personal value, and even personal experiences became manifestations as parts of a world of subjective emotions,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st and the everyday objects in representing them as aesthetic subjects on canvas and in forms of new images. To this end, the word "BODYSHAPE," which the artist created to imply the meaning and the context of her works.

The dissertation progresses to define the equivocal points of view

seen through forms of the simplified objects, explain the phenomenon of perception through the expressed objects, and narrate the artist's expressive method that bases on material qualities. The art pieces were expressed using everyday items, through physical traits of graphite, and by using emotion-introduced perforated line drawings, a trademark of the artist. The writer then analyzed and described the works in categories of collagraphy, drawing, stencil, and digital print before accounting on the intended equivocal expressions of everyday items. We encounter and use countless number of objects in our modern society lives. We recollect and reminisce upon our own experiences and events through these objects with which we have unbreakable bond. And because things that make us remember and reminisce, whether person or object, have meanings and significances in our minds, they provide us with perception of an object when we encounter that particular object. Like staring at objects in a photograph and portraying the associated traces (ideas and meanings) lingering in the mind. It was presented in this thesis that the audience can only perceive objects differently because they are of different perception and overcame the obsession of those seeking answers that are not answers.

This writer simplified the "BODYSHAPE" of objects that yield different perceptions on different people and used other nearby objects to present entirely new objects. Lastly, the writer studied and analyzed works portrayed using the material's corporeity by approaching them from a formative angle.